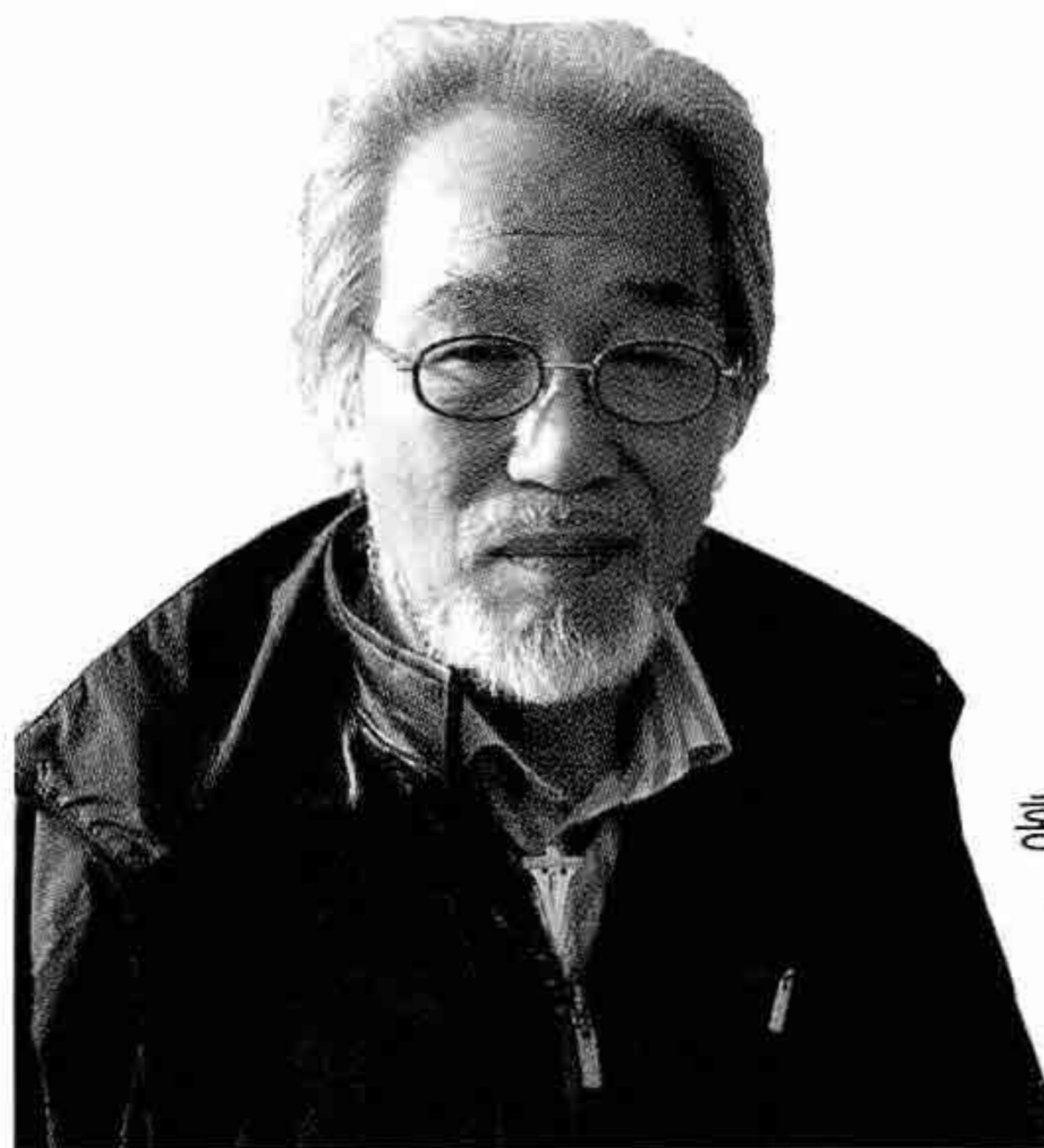


# 충북도립미술관건립에 나의 모든 것을 기증합니다



홍익대학교 고승관 교수가 지난 7월 3일 충북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자신이 만든 작품과 함께 수집품 등을 기증했다. 특히 이번 기증은 고승관 교수가 20년간 작업해 온 286개의 돌탑과 작품 300여점 및 그동안 수집해 온 민속품 및 공예품 200점도 함께 기증했다. 이와 아울러 도립미술관 부지와 함께 미술관 건물도 함께 기증했다. 다음은 고승관 교수의 글이다.

고승관 · 홍익대 교수(도원성미술관장)

지난해부터 충북지역의 문화계에 작은 설레임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도립미술관 건립이 가시화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미술관은 그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공간이자 경쟁력 높은 브랜드입니다. 한때는 성장지상주의에 밀려 미술관을 짓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연을 펼치는 것이 사치라는 비아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화를 통해 그 지역을 특화하고 복지도시로 살찌우는 사례를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은 작품만을 감상하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참여와 연대,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수준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기능까지 수행하는 등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작품이나 행사를 유치하는가 하면 스타 마케팅까지 동원하는 등 그야말로 기업 뺨치는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작가와의 대화를 하거나 문화예술아카데미, 찾아가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민들이 만족할때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잘 키운 미술관은 그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문화브랜드로 성장할수 있으며,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도 합니다. 파리의蓬피드센터, 동경의 모리미술관, 베를린의 유대인미술관,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등이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시와 제주도는 박물관 미술관의도시, 살아있는 에코뮤지엄으로 만들겠다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박물관 미술관을 짓고 있으며, 서울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마다 미술관을 짓고 수준높은 컬렉션과 전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김해에서는 건물 전체가 도자벽화로 만들어진 클레이아크미술관을 짓는 등 그야말로 전국이, 세계가 문화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 충북도에서도 도립미술관을 짓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이 발표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설레임이 없다면 진정한 예술인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평생을 미술인으로, 교육자로, 공예인으로 살아온 저의 모든 것을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해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원리 산 49번지 일원의 117,620㎡를 도립미술관 부지로 기증하겠습니다. 이곳에서 20여년간 열정을 다해 작업 해 온 286개의 돌탑, 미술관 등록을 앞두고 있는 건물 등 모든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가 평생을 바쳐 작업해 온 작품 300여점과 그동안 수집해온 민속품 및 공예품 200여점 등 모든 것을 기증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작품과 부동산을 돈으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것 자체가 사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6월 홍익대학교 조형대학을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의 길, 창작의 길은 죽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꿈을 안고 작품활동을 해왔던 도원리에서 돌탑을 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충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도원리에서 문화를 노래하고 희망을 스케치한다면 아까울 것 하나 없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도민의 것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며, 세계인의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시작할 때 저

는 기획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예의 불모지에서 뚝딱지같은 부질없는 일들을 하느냐며 샷대질도 하고 핀잔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10년 후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세계 공예문화의 대축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의 공예인들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 초대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원리에 도립미술관을 짓는다면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지, 세계 미술의 1번지, 미래지향적인 문화담론의 허브로 발전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줄수 있다면 그 무엇도 희생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여기에 있다는 마음뿐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대안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며 복지증진과 시민 대화합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세계 일류도시, 미래지향적인 젊음의 도시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문화를 통한 아름답고 풍요로운 충북을 희망합니다.☺